

돌봄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 돌봄의 제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윤 승 희*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에서 다루어진 돌봄의 개념이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돌봄이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비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의 비공식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의 제도적-문화적 측면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 13개 국가들은 3개의 유형(사회적 돌봄 유형, 모성지원 돌봄 유형, 돌봄의 가족 책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세 가지 유형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돌봄의 제도와 문화적 차이가 여성의 고용률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유형을 통해 돌봄의 정책적 차이뿐 아니라 돌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돌봄 정책과 돌봄 인식의 차이로 인해 복지국가의 돌봄 구조의 다양성과 여성고용형태의 다양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현재 한국의 아동 돌봄 정책에 시사하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돌봄, 복지국가 유형화, 돌봄 제도(공식적 돌봄 제공, 비공식 돌봄 제공), 돌봄 문화, 여성 고용 형태

※ 투고일 - 2012. 3. 5. 심사완료일 - 2012. 5. 16. 게재확정일 - 2012. 6. 3.

* 윤승희(email: luck09@hanmail.net),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I. 문제제기

1980년대 이전까지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 ‘돌봄(care)’은 중요한 분석적 개념이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돌봄은 주로 가족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무급노동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사회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과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돌봄은 복지국가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고용률의 증가 등으로 그 동안 가족이 부담해오던 돌봄의 공백 현상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게 되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복지국가 재편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차원으로 부각된다(Taylor-Gooby,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은 가족 내 보살핌과 관련한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가져옴과 동시에 복지국가 재편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돌봄’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비교연구에 포함시킨 것은 바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였다(Lewis, 1999; Daly, 2000). 그동안 주류 복지국가 논의들은 복지제공에서 국가와 시장 간의 책임 분화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가족은 복지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젠더적 차원이 결여된 것이었고, 복지 제공에서 가족과 여성의 무급 보살핌 노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간과된 것이었다. 기존 복지국가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페미니즘이 주목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돌봄이다.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은 복지국가와 다르게 관계를 맺게 되고 이로 인해 복지국가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돌봄이라는 것이다(유혜미, 2004). 이에 따라 페미니즘 논의들은 돌봄 개념의 특수성과 돌봄 노동의 젠더 간 노동 분화에 대해 논하며, 복지국가의 돌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을 제시한다(Lewis and Ostner, 1991; Sainsbury, 1999).

돌봄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 사회 구성원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이자 필수적인 노동으로(Daly and Lewis, 2000), 돌봄은 사회 내 여성의 지위, 권력과 물질적 재화와 분배, 공공정책의 역할이 연결되

는 문제이며, 특히 돌봄 노동은 신체적/물리적 노동뿐 아니라 정서적/감정적 노동이며, 여기에는 또한 윤리적/도덕적 문제까지 포함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Daly, 2002). 이렇듯, 돌봄은 개인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개인과 사회, 국가(공식적인 영역)와 가족(비공식적 영역)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일상적인 노동이지만 개인의 감정과 윤리 그리고 사회의 가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문화적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봄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이러한 돌봄의 다차원적 속성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을까? 돌봄이 복지국가 논의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복지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돌봄의 개념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Daly, 2002).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복지국가 돌봄 논의에서는 주로 국가의 돌봄 정책에만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의의는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국가-시장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계까지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유형론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논의에서 가족(비공식 영역)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또한 이는 돌봄이 개인과 사회,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식적인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돌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비공식 측면도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족(비공식 영역)은 예전부터 돌봄의 주된 책임자였다. 하지만 돌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역할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국가(공식적 영역)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의 측면만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Bettio and Plantenga, 2004).

둘째, 돌봄의 문화(care-culture)¹⁾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체제 이론에서 문화는 중요한 개념이다. 실제로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레짐에서 문화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의 세 가지 복지 세계가 구별되어 지는 방법은 뚜렷하다. 바로 세 가지의 분류 기준과 각 레짐 안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되어진다는 것이다. ‘인민의 집’, 보편주의, 연대와 같은 문화적 개념은 사회민주주의 레짐 국가들의 이해를 돕는다. 반면 교회와 사회의 초석으로 가족주의는 가족민주주의

1) 본 연구에서 돌봄 문화의 개념은 일, 성역할, 아동기와 아동보육에 대한 가치와 규범으로 모성의 고용에 대한 태도와 어떤 것이 좋은 돌봄인가라는 개인의 인식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레짐의 문화적 개념이며, 노동윤리, 자유와 선택의 개념은 자유주의 국가들을 이해하는 문화적 개념이기도 하다. 이렇듯 Esping-Andersen의 유형화 논의가 지금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은 그의 유형화 범주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의 범위가 제도와 문화를 포괄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제도와 문화적 개념이 어우러져 각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젠더 이론은 Esping-Andersen의 논의에 젠더와 돌봄의 차원을 포함시켰다는 의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문화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사실 돌봄은 그 자체로 문화적 개념이기도 한다. 돌봄이 문화적 개념이라 함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문화를 의미하며, 돌봄을 둘러싼 젠더 간 권력관계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돌봄을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Kremer, 2002). 돌봄은 젠더 평등의 재분배 문제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Kremer, 2007).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연구한다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문화적 차원을 모두 살펴봐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돌봄을 바라보는데 있어 문화적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정책과 문화의 다양한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비판하고 돌봄에 대한 복지국가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돌봄 제도적 측면과 돌봄 문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을 시도할 것이다. 공식적 제도와 정책 중심이었던 기존의 돌봄 논의에 비공식 돌봄의 측면과 돌봄 문화를 통합함으로써 복지국가와 돌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제도와 문화의 관계 따른 복지국가의 성과가 과연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기존의 돌봄레짐의 연구들에서는 유형화에 대한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문제제기와 맥을 같이한다(Hobson, 1994). 이에 본 연구에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돌봄의 대응방식과 이러한 돌봄의 방식이 여성의 고용 형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돌봄과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

돌봄의 논의가 비교 복지국가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Esping-Andersen (1990)의 세 가지 복지체제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sping-Andersen은 1990년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라는 세 가지 분류기준을 가지고 복지국가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 가지 체제로 설명한다. 세 가지 복지체제는 북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 체제(Social democratic regime), 중서부 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보수주의 조합주의 체제(Conservative corporatist regime),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체제(Liberal regime)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의 요지는 그의 탈상품화의 개념이 상품화를 전제한 개념으로 전일제 남성 노동자에만 적용 가능하지 상품화 되어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상품화 되어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은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Orloff, 1993). 또한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 체제론은 탈상품화 수준과 계급의 불평등의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복지국가 유형화의 차원이 국가-시장의 관계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Daly, 1994). 즉, Esping-Andersen의 논의에는 젠더 관계와 젠더 관계에서 오는 차별적인 영향이 간과되었으며, 돌봄 노동과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의 역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Knijin and Kremer, 1997).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Esping-Andersen은 1999년 그의 저서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에서 탈가족화(defamilis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논의를 비롯한 복지국가의 주류 논의들은 성 통합적인 관점이 부족하며, 복지제공자의 주요 영역인 가족의 역할이 간과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들은 돌봄(돌봄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돌봄을 중심으로 젠더적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Lewis와 Ostner(1991)는 성별분업에 기초하여 대안적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

하였다. 이들은 복지국가라는 기본적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이분법적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성은 남성(남편)을 통해 사회보장의 수급권을 받을 수 있고 집안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여야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는 형태라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복지국가를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 부양자 모델, 약한 부양자 모델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강한 부양자 모델로 프랑스는 온건한 부양자 모델 그리고 스웨덴은 약한 부양자 모델로 구분된다. 강한 부양자 모델인 영국의 경우 이분법적 성별 분업이 강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거의 지원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약한 부양자 모델인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을 동일한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공적 서비스와 양육휴가를 폭넓게 제공한다. Lewis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젠더 차원을 통합하고자하는 새로운 젠더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이 모델은 남성부양자모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Lewis는 무급과 유급노동을 평등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이는데 이는 Lewis의 초점이 돌봄 노동이 아닌 복지국가의 젠더 불평등과 재생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Sainsbury(1999)는 Lewis 와 Ostner의 부양자 모델이 너무 단순함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수급단위의 조건과 급여 단위, 가족이데올로기, 가족 내 분업을 강화시키는 다른 정책 영역에서의 영향력, 돌봄 노동의 가치 등을 중심으로 남성부양자모델, 젠더 역할분리 모델, 개인주의 모델로 구분한다. 남성부양자모델은 엄격한 성별분업을 전제로 보살핌은 주로 가족의 영역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돌봄노동은 무급이다. 젠더 역할분리 모델 역시 엄격한 성별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성부양자모델과의 차이는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급여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모델은 부양자와 양육자의 역할 분담이 남녀 동등하게 부여되며, 돌봄 영역은 국가에 의해 강하게 개입되고 공적 서비스화된다. Sainsbury의 모델은 Lewis의 모델보다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Sainsbury의 모델에서 무급노동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앞선 Lewis의 모델에서 간과한 돌봄의 관점이 부각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ainsbury의 모델에서 돌봄의 논의는 제한적이다. Lewis와 Sainsbury의 모델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젠더를 차원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생계부양모델에 너무 치중하였다는 것과 주로 이념적 분석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이념적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돌봄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Fraser(2000)는 부양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형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시민의 보편적 평등을 보장하는 보편적 양육자 모델을 제안한다. 보편적 양육자 모델은 기존의 부양자 모델이 남성의 역할을 표준으로 삼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갖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들의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젠더 질서의 구조를 넘어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Gornick과 Meyers(2003)는 복지국가 유형을 남성부양자-여성양육자 모델, 이인소득자-여성기간제노동자모델, 이인소득자-국가양육자모델, 이인소득자-이인양육자 모델로 유형화함으로써 유급노동과 돌봄의 사회화 방식을 다양한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가족과 돌봄에 관련된 국가 지표들의 개발로 구체적인 개별프로그램 수준에서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도 등장하는데, 주로 이러한 연구들은 보육지원정책과 같은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Leitner(2003)는 아동과 노인의 돌봄 정책을 구체적인 가족정책 지표(부모휴가, 보육서비스, 노인에 대한 현금지원, 재가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유형화하였다. 또한 Bettio와 Plantenga(2004) 역시 아동과 노인 돌봄을 포괄하는 다섯 가지 돌봄 레짐을 유형화하였다. 특히 이들은 공식적 돌봄 정책 뿐 아니라 비공식적 돌봄 제공까지 분석의 틀에 포함시켰다. 이들이 제시한 돌봄레짐은 스칸디나비아국가들로 대표되는 공공 돌봄 모델, 프랑스와 벨기에가 속하는 부모 선택 모델, 남부유럽국가들이 속하는 가족양육모델, 영국과 네덜란드가 속하는 사적화 된 시간제 돌봄 모델,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속하는 사적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촉진되는 모델로 구분된다. Wall(2007)의 유형화는 Bettio와 Plantenga와 유사하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젠더 평등적인 국가(스웨덴, 덴마크)와 부모의 선택이 강조되는 국가(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나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념적 유형화 연구와 달리 구체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해 정책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돌봄을 공식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제도와 정책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어 돌봄을 둘러싼 전체적 구조의 틀을 파악하는데 제약을 보이게 된다.

2. 돌봄 문화와 복지국가 연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은 사회 내 여성의 지위, 권력과 물질적 재화와 분배, 공공정책의 역할이 연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돌봄 노동은 신체적/물리적 노동뿐 아니라 정서적/감정적 노동이며, 여기에는 또한 윤리적/도덕적 문제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Daly, 2002). 하지만 돌봄의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이를 고려해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문화와 여성의 선호라는 개념을 사용해 여성의 고용 패턴과 출산에 대한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분석한 Pfau-Effinger(1998, 1999)와 Hakim(2000, 2002)의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독일 사회학자인 Pfau-Effinger은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럽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정책과 문화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Pfau-Effinger는 독일과 네덜란드 기혼 여성의 고용 형태와 관련해 왜 사회정책만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가를 설명한다. 공공아동양육시설 확충과 보편적 급여 구조는 의심할 여지없이 여성의 고용행위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여성들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정책과 문화의 관련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이한 여성의 고용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Pfau-Effinger는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바로 젠더 문화(gender culture), 젠더 질서(gender order), 젠더 배열(gender arrangement)이다. 젠더문화(gender culture)는 일, 여성 그리고 남성, 아동기와 아동보육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며, 젠더 질서(gender order)와 젠더 배열(gender arrangement)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Pfau-Effinger에 의하면 독일과 네덜란드 여성 고용의 행위의 차이는 제도에 의한 것이기 보다 젠더 문화, 젠더 질서, 젠더 배열의 틀에서의 여성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Pfau-Effinger는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가족 경제적 젠더 모델(가족 사업), 남성 부양자/여성아동양육자 모델, 이인부양자/국가아동양육자 모델, 그리고 이인부양자/이인아동양육자 모델이다. 그렇다면, Pfau-Effinger는 돌봄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Pfau-Effinger의 논의에서 돌봄은 중요한 개념으로 첫 번째 차원인 젠더 문화와 분명하게 연결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돌봄은 젠더 문화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는데 하나는 모성의 고용에 대한 태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동양육에 대한 이상향이다.

문화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Hakim이다. Hakim은 여성의 고용의 변화와 출산율의 변화를 여성의 다양한 가치와 일과 삶의 선호로 설명한다. Hakim은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되면 모든 여성들이 전일제 노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비판한다(Hakim, 2000). Hakim은 21세기 현대사회의 역사적 변화(피임의 혁명, 화이트 칼라 직종의 확장, 이인 소득 종사자의 확장을 위한 시간제 근로의 확장, 태도와 가치 그리고 삶의 선호에 대한 선택의 중요성 증가)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과거에 없었던 선택이 여성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Hakim, 2002). 즉 여성은 더 이상 속박된 존재가 아니며, 여성의 진정한 자유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Hakim, 2000). 바로 근로 중심형 여성(work-centered women), 적응적 여성(adaptive women), 가족 중심형 여성(home-centered women)이다. Hakim의 연구에서 돌봄의 개념 역시 등장 하지만 Hakim의 선호이론의 초점은 일과 가족의 조화이지 돌봄은 중심 개념이 아니었다. 또한 Hakim은 돌봄의 젠더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방식이든 여성의 자유선택만 강조하고 있다.

Pfau-Effinger와 Hakim의 논의는 문화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데, Pfau-Effinger의 논의가 좀 더 문화를 국가적 역사적 기반에 근거한 개념으로 본 반면, Hakim은 쉽게 변화하는 선호와 가치로 문화의 개념을 개인적 선호의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즉, Pfau-Effinger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강조하고 Hakim은 개인적 선호를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돌봄 문화의 개념은 Pfau-Effinger의 젠더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일, 성역할, 아동기와 아동보육에 대한 가치와 규범으로 모성의 고용에 대한 태도와 어떤 것이 좋은 돌봄인가라는 이상향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OECD 13개 국가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영국, 미국이다. 그리고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유형화 방식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으로, 군집분석이란 데이터의 구조를 아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대상(혹은 속성)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는 연구방법이다. 군집분석은 무엇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관측대상들 간에 정해지는 유사성을 기초로 비슷한 것끼리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전체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것과 데이터 및 그룹 내의 분산 개념을 기초로 그룹간의 분리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전자인 유사성을 기초로 분류한 방법이다.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method)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그룹간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그룹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변수

돌봄의 제도적 문화적 차원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측정변수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 변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돌봄의 제도적 차원이다. 돌봄의 제도적 차원은 다시 공식적 돌봄의 제공 구조와 비공식적 돌봄의 제공구조로 나누어진다. 공식적 돌봄 제공은 국가에 의한 제공되는 아동 돌봄 정책으로 아동 돌봄 제공이 국가에 의해 얼마나 제공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 공식적 돌봄 제공 변수는 GDP 대비 아동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출 비율(%), 출산 휴가 기간과 급여대체율, 부모 휴가의 기간과 급여 대체율, 0-2세, 3-5세 아동의 공적 보육시설 등록률이 해당된다. 비공식 돌봄 제공 구조는 가족이 책임지는 돌봄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0-2세 아동의 비공식 돌봄 비율과 3-5세 아동의 비공식 돌봄 비율 그리고 가족이 부담하는 아동 부양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임금 대비 아동보육시설 비용 부담률로 구성된다. 그리고 돌봄의 제도적 차원에 대한 자료는 OECD의 2007년 family database에서 수집되었다. 둘째, 돌봄의 문화적 차원이다. 돌봄의 문화적 차원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근로 어머니에 대한 인식, 여성의 선호에 대한 인식, 돌봄의 남녀역할, 유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바람직한 근로 형태로 구성된다. 돌봄의 문화적 차원 변수는 ISSP(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제공하는 2002년 자료를 사용되었다. ISSP는 1985

<표 1> 측정변수 설명

			변수 설명	자료출처
제도적 접근	공식적돌봄 제공 구조 (Provision of formal care)	휴가서비스	출산휴가(휴가기간, 급여수준)	OECD (2007)
			육아휴직(휴가기간, 급여수준)	
		보육 서비스	0-2세 공보육시설 등록률	
			3-5세 공보육시설 등록률	
		공적지출	GDP 대비 가족,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률	
	비공식돌봄 제공 구조 (Provision of informal care)	비공식 보육	0-2세 비공식 아동양육돌봄 비율	
			3-5세 비공식 아동양육돌봄 비율	
		아동보육 시설비용 부담 ²⁾	평균 근로소득 임금에서 아동보육시설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문화적 접근 ³⁾	근로모에 대한 인식 ⁴⁾		■ 근로모는 전업주부와 같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다(V4). ■ 부모가 일을 하면 취학전 아동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5). ■ 엄마가 전일제 근무를 하면 가족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V6).	ISSP (2002)
	여성의 선호에 대한 인식 ⁵⁾		■ 대부분의 여성은 가정과 아이를 원한다(v7). ■ 전업주부로 있는 것은 유급노동을 하는 것만큼 만족스럽다(v8). ■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v9).	
	돌봄에 대한 남녀의 역할 ⁶⁾		■ 남녀는 가구 수입에 공헌해야한다(v10). ■ 남성의 역할은 돈을 벌어드리는 것이고 여성의 역할은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V11). ■ 남성은 지금보다 더 많이 집안일을 해야한다(V12). ■ 남성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동 돌봄에 할애하여야 한다(V13).	
	바람직한 어머니의 고용형태 ⁷⁾		■ 아동이 취학 전 모의 고용 형태(V15)	

2) 노동자평균임금대비 아동보육시설비용부담비율을 의미함.

3) 문항 V4-V13은 5점 척도로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도 안 그렇지도 않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년부터 매년 정해진 주제(시민권, 환경, 가족 및 성 역할 변화, 민족성, 종교, 정부의 역할,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불평등, 노동지향성)에 대해 45개 국가에 속한 개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SP 자료에서 2002년에 발표한 ‘가족 및 성역할 변화’란 주제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IV. 국가들의 돌봄 제도와 돌봄 문화

1. 돌봄의 제도적 접근

1) 공식적 아동 돌봄 제공 구조

공식적 아동 돌봄 제공 구조는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가족 아동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률, 0-2세 공적 아동 보육시설 등록률, 3-5세 공적 아동보육시설 등록률, 모성휴가(기간, 급여 대체수준)와 부모휴가(기간, 급여 대체수준)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국가들의 아동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GDP 대비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률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국과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은 GDP 대비 가족과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률이 1.19로 가장 낮았으며, 그 뒤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국가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률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보육시설 등록률을 살펴보면, 0-2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덴마크가 65.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 0-2세 아동 등록률이 12.1%와 17.8%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다. 3-5세의 경우 0-2세 아동보육시설 등록률에 비해 국가

-
- 4) 문항의 합을 구하기 위해 V4문항은 역점수화함. 근로모 인식 점수가 높은 것은 근로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임.
 - 5) 문항의 합을 구하기 위해 V9문항은 역점수임. 즉, 여성 선호에 대한 인식의 점수가 낮을 수록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임.
 - 6) 문항의 합을 구하기 위해 V10, V12, V13는 역점수임. 돌봄의 남녀 역할 점수가 높다는 것은 가족 내 변화된 성역할에 대한 인식 혹은 요구가 높다는 것임.
 - 7) 문항 V15는 ‘1. 전일제 근로, 2. 파트타임, 3. 집에 머문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국가에 의한 아동 돌봄 제공 구조

국 가	GDP대비 가족·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률	보육서비스		휴가서비스			
		0-2세 (%)	3-5세 (%)	모성휴가		부모휴가	
				휴가기간 (주)	급여소득 대체율(%)	휴가기간 (주)	급여소득 대체율(%)
스웨덴	3.35	46.7	91.1	8.5	80	51.4	60
덴마크	3.28	65.7	91.5	18.0	50.4	46	50.4
노르웨이	2.91	51.3	94.5	9	80	91	34.7
핀란드	2.83	28.6	74.2	18	65.9	143.5	16.6
프랑스	3.71	42.0	99.9	16	100	146	19
독일	2.71	17.8	92.7	14	100	148	27.5
오스트리아	2.64	12.1	77.6	16	100	104	18.5
스페인	1.47	37.5	98.5	16	100	144	0
호주	2.81	29	54.6	6	0	52	0
미국	1.19	31.4	55.7	12	0	0	0
네덜란드	2.84	55.9	67.1	16	100	26	20.6
포르투갈	1.32	47.4	79.2	17	100	13	0
영국	3.58	40.8	92.7	52	24.6	13	0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07.⁸⁾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99.9%를 보이고 있었으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도 모두 9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0-2세 아동보육시설 등록률이 낮은 국가들 예를 들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의 3-5세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3세 이상의 경우 아동 보육정책의 시각이 아닌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 호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달리 3세 이상의 보육시설 등록률도 60%를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가서비스는 출산 휴가와 부모휴가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출산 휴가의 경우 여성이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복직이 보장된 휴가로 많은 국가들에서 유급으로 규

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OECD family database 2007년 이전을 기준으로 수집한 것으로 2007년 이후 각국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기엔 일부 한계가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2007년 이후 부모시간과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정책의 변화가 있었음.

정하고 있다. 출산 휴가의 기간은 ILO에서 최소 1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4주 이상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⁹⁾ 출산휴가의 급여 대체수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급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호주와 미국의 경우 무급이며, 영국의 경우 급여 대체수준이 24%로 보장 수준이 낮다. 부모휴가의 경우 출산 휴가에 비해 그 기간과 급여율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가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로 각각 148주와 146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액인데, 특히 부모휴가의 급여액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사용을 유인할 수 있어 젠더 형평성에 기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아무리 휴가 기간이 길다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거나 무급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부모휴가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부모휴가의 급여수준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60%,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페인, 호주, 미국, 영국, 포르투갈에서 부모휴가는 무급이다.

2) 비공식 아동 돌봄 제공 구조

비공식 아동 돌봄 제공 구조는 아동 돌봄에 있어 가족의 부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비공식 아동 돌봄 비율과 아동보육시설 비용 부담률로 구성된다.

우선 비공식 아동 돌봄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0-2세 비공식 아동돌봄 비율이 51.9%로 13개 국가들 사이에 가장 높은데, 이 수치는 네덜란드의 0-2세 공적 아동시설 이용률(55.9%)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의 0-2세 비공식 아동돌봄 비율은 0.6%로 네덜란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돌봄 비율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호주, 미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의 경우 역시 네덜란드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영국, 포르투갈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덴마크의 경우 3세 이상의 비공식 돌봄 비율은 0.1% 수준으로 3-5세 아동들의 공적 보육시설 등록률이 91.5%인 것에 비춰어 보면 대부분의 아동들이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3세 이상 비공식 돌봄 비율이 낮는데 이러한 이유는 공적 보육시설 등록률이 높다는

9)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휴가가 부모휴가와 통합되어 있음.

<표 3> 가족에 의한 아동 돌봄 제공 구조

국 가	비공식 돌봄 비율		아동보육시설비용 부담 ¹⁰⁾
	0-2세	3-5세	
스웨덴	1.5	0.5	4.5
덴마크	0.6	0.1	8.4
노르웨이	4.3	2.3	9.0
핀란드	1.3	4.2	7.6
프랑스	17.7	19.6	25.1
독일	14.5	17.4	9.1
오스트리아	1.98	30.3	9.6
스페인	19.5	9.1	30.3
호주	24.2	21.4	22.4
미국	33.1	20.9	19.5
포르투갈	25.4	35.9	27.8
네덜란드	51.9	47.5	17.5
영국	31.7	36.9	24.7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007.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보육시설 비용은 중위소득 평균 임금 대비 아동보육시설 비용을 나타낸 것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아동보육비 부담을 나타낸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가족이 부담하는 아동보육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보육비는 가구 소득의 27~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을 비롯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우는 보육비 부담률이 적게는 4~9% 수준으로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국가들로 이 국가들의 부모의 아동 양육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10) 노동자평균임금대비 아동보육시설비용부담비율을 의미함.

2. 아동 돌봄 문화적 접근

아동 돌봄 문화에 대한 척도는 근로모에 대한 인식, 여성의 선호, 돌봄에 대한 성역할 인식, 좋은 돌봄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우선 근로모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점수가 높을 수록 근로모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덴마크가 근로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르투갈의 경우 어머니가 근로를 할 경우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고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모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여성 선호에 대한 질문은 점수가 낮을 수록 전업주부로서의 여성의 만족도가 높고 점수가 높을 수록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핀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아동 돌봄 문화에 대한 척도

국 가	근로모에 대한 인식	여성의 선호	돌봄에 대한 성역할	좋은 돌봄에 대한 인식
스웨덴	3.56	3.36	3.97	2.05
덴마크	3.72	3.58	3.97	2.07
노르웨이	3.46	3.45	3.83	2.15
핀란드	3.33	2.96	3.79	2.24
프랑스	3.33	3.42	4.02	2.28
독일	3.17	3.51	3.62	2.49
오스트리아	2.87	3.51	3.65	2.43
스페인	3.01	3.36	4.0	2.17
호주	3.11	2.97	3.56	2.55
미국	3.34	2.93	3.71	2.32
포르투갈	2.64	3.17	4.04	2.26
네덜란드	3.20	3.31	3.49	2.10
영국	3.20	3.17	3.63	2.53

출처: ISSP ZA3880, 2002.

세 번째 돌봄에 대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 수록 변화된 성역할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파악하면 된다. 돌봄에 대한 성역할 인식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라 분류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척도의 점수가 높다고 이들 국가의 젠더 평등 정도가 높다고 연결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가족 안에서 성역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이 해당 국가의 젠더 평등 정도를 가늠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높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젠더 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지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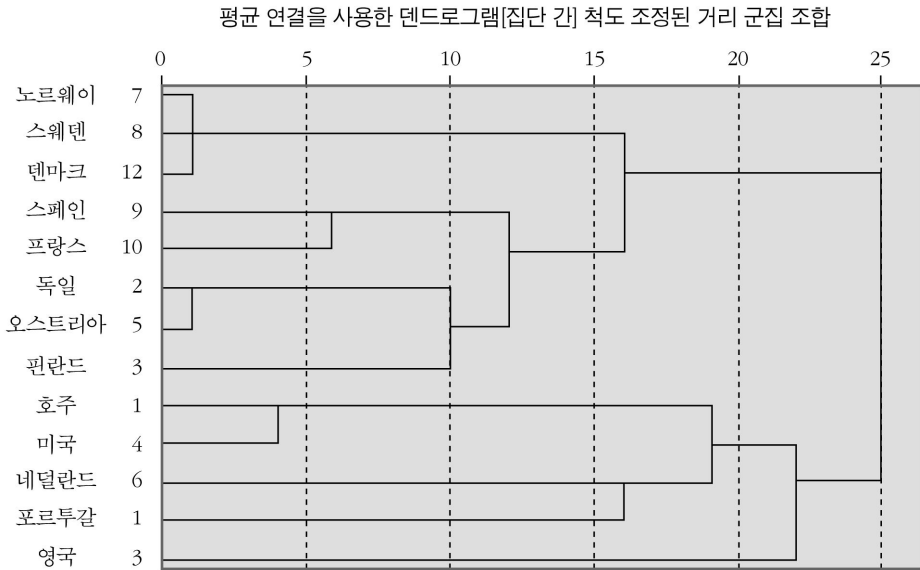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좋은 돌봄에 대한 인식은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나이 일 때 적절한 어머니의 고용 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답은 “1: 전일제 고용, 2: 시간제 고용, 3: 전업주부”를 의미한다. 즉, 점수가 3에 가까울 수록 전업주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시간제 고용과 전업주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유형화 결과

1. 군집분석 결과

<그림 1>은 돌봄의 제도적 문화적 차원으로 13개 국가를 유형화한 군집분석 결과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몇 개의 군집으로 분석대상을 묶을 것인가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13개 국가를 3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군집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속해 있고, 두 번째 군집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속해 있으며 세 번째 군집은 미국, 호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속해 있다.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과 다른 점을 몇 가지 발견 할 수 있다. 우선 동일한 국가군으로 분류되던 북유럽 국가들 중 핀란드가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나뉘어졌다는 것이다. 즉, 핀란드의 경우 다른 사민주의 국가들보다 프랑스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그림 1> 군집분석 결과

서 핀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더불어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전형으로 간주되며, 이들 국가들은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핀란드는 젠더 평등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다른 국가들과 상이한 차이점을 보이는 국가이기도 하다(윤승희, 2010).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전통적 가족적 모델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류된다(윤홍식, 2007; 윤승희2010).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이할만한 점은 보수 조합주의로 분류되던 네덜란드와 남부유럽 국가군에 속하던 포르투갈이 자유주의 국가들인 미국과 호주와 같이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미국과 호주와 같이 세 번째 군집으로 분류하였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세 번째 군집의 하위 분류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국을 기존의 자유주의 국가 군집들과 같은 군집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세 군집으로 분류된 유형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돌봄 유형, 모성 중심 돌봄 유형, 돌봄의 가족 책임 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2. 유형별 특징 분석

본 장에서는 유형별 특징으로 분석하고, 유형별 국가들의 여성 고용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화된 국가들의 여성고용형태를 비교하는 이유는 돌봄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의 다양성이 가지는 함의를 여성고용형태를 통해 가늠해 보기 위함이다. 유형별 여성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여성의 고용형태

국 가		여성 고용률	시간제 고용률	모의 고용비율	전일제 고용의 젠더 차이
사회적 돌봄 유형	스웨덴	70.2	19.8	71.9	10.4
	덴마크	73.1	24.8	71.4	12.7
	노르웨이	74.4	30.4	-	17.7
모성 중심의 돌봄 유형	핀란드	67.9	15.9	51.8	5.8
	프랑스	56.8	22.4	58.6	18.2
	독일	65.2	38.1	55.5	29.1
	오스트리아	66.4	32.2	57.9	26.7
	스페인	53.5	21.4	54.8	22.5
돌봄의 가족 책임 유형	호주	66.2	38.3	-	26.6
	미국	63.4	19.2	54.2	14.1
	포르투갈	61.6	13.8	67.6	13.9
	네덜란드	70.6	59.9	75	38.8
	영국	65.6	38.8	54.0	27.3

출처: ISSP ZA3880 , 2002.

1) 사회적 돌봄 유형: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들로 이 국가들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 정도, 보편주의, 관대한 급여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돌봄의 제도적, 문화적 분석틀로 접근을 하였을 때 역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국가에 의한 아동 돌봄 지원정도가 높는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0-2세 보육서비스 등록률과 부모휴가의 급여 대체수준이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돌봄의 비공식 제공 구조와 연결해 살펴

보면 더욱 부각된다. 0-2세, 3-5세 아동의 비공식 돌봄 비율의 경우 4%가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아동보육에 대한 가구부담정도의 경우 4.5~9% 사이로 가구 부담 역시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아동 돌봄에 대해 국가의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구의 돌봄 부담을 낮춰주는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돌봄의 상이 사회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사회적 돌봄의 개념은 돌봄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인 가족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성호, 2009). 즉 이 국가들은 사적인 돌봄의 문제를 공적인 것으로 다루며,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선도하고 있다. 돌봄에 대한 문화적 수준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젠더 평등적이며, 근로모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과 낮은 가족 부담률 그리고 근로 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젠더 평등 인식은 여성 고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표 5>를 보면, 이 유형의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젠더 간 전일제 고용률의 차이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는 이 유형의 국가들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여성의 근로에 상당히 우호적이며, 돌봄의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에게 주어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려는 의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들의 인식 역시 어린 아이를 두고 일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동과 가족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인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 특히 3세 이하 아동을 둔 어머니의 높은 고용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모성 중심의 돌봄 지원 유형: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두 번째 군집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속한 모성 중심 돌봄 지원 유형이다. 이 국가들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낮은 0-2세 아동 보육 시설 이용률과 부모휴가 급여율의 낮다는 것이다. 반면 3-5세 아동 보육시설의 경우 상당히 높으며, 출산 휴가의 급여수준은 핀란드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국가에 100%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은 중간정도

로 가족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수준이 보통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형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 수준의 방향성이 사회적 돌봄 유형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동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도가 높고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돌봄 유형과 유사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정책 구성이 모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가정책에서도 이 국가들은 유난히 모성 보호를 강조하는 출산 휴가에 치중한다. 반면 부모휴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아동 보육시설 이용률 정도에서도 0-2세의 이용률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국가들의 정책이 지향하는 돌봄의 상은 모성 중심의 돌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의 문화적 측면도 모성을 강조하고 있을까? 돌봄의 문화적 측면을 보면 근로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적 돌봄 유형에 비해 다소 낮고, 어린 아동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집에 머물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근로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아동이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더 많이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더불어 돌봄에 대한 문화적 인식 역시 아동 돌봄에 주도적인 모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유형의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다는 것과 특히 모의 고용 비율이 낮다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측면과 돌봄의 인식이 모성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성 중심의 제도와 문화적 인식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치와 인식은 변화하는 것이다. 모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식 역시 변화할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의 돌봄에 대한 성역할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가구 내 성역할 변화에 대한 욕구 정도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가구 내 남성의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성역할에 변화를 여성들이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성 중심의 돌봄 유형의 경우 돌봄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의 제공에 있어 젠더 간 불평등을 양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 책임의 돌봄 유형: 미국, 호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세 번째 유형은 미국, 호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속한 가족 책임의 돌봄 유형이다. 이 국가들의 돌봄의 제도적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다른 유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휴가 서비스의 지원정도가 낮는데, 미국과 호주,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경우 부모휴가 무급이며, 미국과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급인 출산 휴가까지 무급으로 나타나 이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낮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에 대한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족의 아동 돌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것과 연결된다. 특히 네덜란드의 0-2세 비공식 아동 돌봄 비율은 0-2세 공적 아동 보육 서비스 비율과 상응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의 아동 보육시설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 상당히 높고, 이는 아동 돌봄이 가족(부모)의 경제력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서비스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정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더라도 자신들의 경제력에 맞는 아동 양육 서비스(설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아동 양육의 계층화를 창출하게 된다(Esping-Andersen, 1999; 2002). 돌봄에 대한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면, 근로모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돌봄 유형보다 낮고, 모성 중심의 돌봄 유형보다 낮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모의 고용비율이 모성 돌봄 유형보다 높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모순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근로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업주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어린 아동에 대한 모의 고용 형태로 집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 것에 반해 실제 여성의 고용형태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해석에 신중을 기하는 지점이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바로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조를 강조하고, 시장의 해법을 장려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의 몫이며, 아돌 돌봄 역시 시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앞에서 이들 국가의 아동 보육비 가족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면 아동의 보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노동시장 진출이 필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성에게 일과 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지우는 것이며,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의 경우 이러한 고충이 가중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시간제 여성 고용률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여성은 일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돌봄의 책임을 가족(특히 부모)에게 부담하는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부모의 경

제적 지위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돌봄의 계층적 불평등이 등장하고 있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돌봄의 비공식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의 제도적-문화적 측면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결과 13개 국가들은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속한 사회적 돌봄 유형으로, 돌봄에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과 낮은 가족 부담률 그리고 근로 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젠더 평등 인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여성의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 국가들의 여성의 고용률이 높으며, 특히 3세 이하 아동을 가진 여성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모성 중심의 돌봄 유형으로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이에 속한다. 이 유형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조합주의 국가들(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과 사민주의 국가(핀란드) 그리고 남부유럽(스페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다른 사민주의 국가들과 분리되어 나온 것이 특징적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모성 중심의 돌봄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모성을 지원하는 정책에 편중 되어 있다는 것과 이 국가들의 근로모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고, 어린 아동이 있는 모의 경우 집에 있는 경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유형의 국가들에서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다는 것과 특히 모의 고용비율이 낮다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모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여성과 모의 낮은 고용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 구조는 돌봄에 대한 모성을 강조하고 지원함으로써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책임 지울 수 있다는 한계점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은 이 국가들의 모성 중심의 돌봄문화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져준다. 이 국가들의 돌봄에 대한 성역할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가구 내 성역할 변화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구내 남성의 돌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 돌봄의 젠더화된 성역할 변화를 여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치와

인식을 둘러싼 문화는 정책적 환경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특징과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간과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은 변화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모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국가들의 돌봄 문화는 어쩌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유형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속한 돌봄의 가족 책임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돌봄에 대한 낮은 정책적 지원, 높은 가족 부담, 근로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시간제 고용률과 모의 고용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낮은 상태에서 아동의 양육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 일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시간제 고용을 더 많이 선택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유형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돌봄의 가족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이 시장을 통해서 돌봄의 욕구를 해결하도록 한다. 보편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이러한 정책은 계층 간 차이를 유발하며, 특히 빈곤한 가구의 경우 비공식 지지망도 약하고 사적 서비스를 이용할 비용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족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되고 아동돌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Papadoulis, 1998).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유형은 돌봄의 계층화라는 문제를 남기게 된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해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돌봄의 비공식적 영역과 돌봄의 문화적 차원을 유형화 틀에 포함시킴으로써 복지국가의 돌봄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을 고려하던 기존의 논의는 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돌봄이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의 다차원적 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돌봄의 공식, 비공식 제도적 측면과 돌봄의 문화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존 유형화와 다른 유형을 도출하였다. 가족주의를 지향하며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거나 보수주의로 분류되던 남부유럽이 더 이상 같은 군집이 아니었으며, 또한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정책적 지원의 폭이 큰 사민주의 국가들 중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보수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돌봄의 문화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다양한 돌봄 방식과 그 결과

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왜 많은 국가들에서 돌봄의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차이가 나는 것인가? 덴마크의 어머니와 네덜란드의 어머니 그리고 독일의 어머니는 왜 다른 고용 패턴을 보이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정책적 지표로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문화적 지표를 더하면 더 포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들의 다양한 돌봄의 대응방식의 차이는 제도적 차이 뿐 아니라 해당 국가들이 가진 특정 돌봄 상 즉, 돌봄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 정책 특히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이 국가들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상이한 이유는 돌봄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덴마크에서 어머니의 고용률이 높은 것과 독일에서 어머니의 고용률이 낮은 것의 차이는 정책적 차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지닌 돌봄에 대한 가치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돌봄의 문화적 가치는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돌봄의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 대상 국가에서 아동이 학령기 이전 나이일 때 어머니의 고용형태를 집에서 머물거나 시간제 근로가 적절하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이는 모든 유형의 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함의를 던져준다. 즉, 아동의 연령이 낮을 때 부모는 아동과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돌봄 유형이든 모성중심의 유형이든 가족 책임 돌봄 유형이든 비슷하다는 것이다. 즉, 아동이 어릴 때 어머니는 고용 단절의 위험이 모든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 고용 형태의 모습은 세 유형의 국가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정책이 돌봄의 문화적(인식)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돌봄을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사회적 돌봄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북유럽 국가에 사는 개인들 역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돌봄은 여성의 고용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긴 부모휴가와 아동 양육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이 정책들이 여전히 양육자로서 어머니상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용주들에게 여성은 고용단절과 자기 개발에 위험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에서 아동을 갖는 것은 여성들의 고용 경력 유지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돌봄을 둘러싼 사회정책과 돌봄 문화는 서로 반대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정책은 해당 사회가 지향하는 돌봄의 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어떠

한 것이 바람직한 돌봄인지를 개인이 결정짓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저출산율로 고민을 하는 서부유럽국가들은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 지원과 문화적 가치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지 못하면 변화의 폭이 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저출산과 낮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 무상 보육이라는 정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정책의 지원 폭을 보편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양적 팽창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돌봄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즉,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유혜미(2004). 젠더 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성호(2009). 아동 돌봄의 사회적 분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와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승희(2010). 북유럽 국가들의 돌봄의 가족화 정책: 부모휴가와 아동가정양육수당정책에 나타나는 아버지 상의 상이성. *상황과 복지*, 30호, p125-162.
- 윤홍식(2007).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p327-354.
- Bettio, F. and Plantenga, J. (2004). Comparing Care Regimes in Europe. *Feminist Economics*. 10(1). 85-113.
- Daly, M. (1994). Comparing Welfare states: Towards a gender friendly approach. in Sainsbury, D(Ed),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 Daly, M.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 Daly, M. and Lewis, J.(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N.(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 industrial Thought Experience. In B. Hobson(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rnick, J and Meyers, M.(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Russell Sage Foundation.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Hakim, C. (2002). Lifestyle preferences as determinants of women's differentiated labour market careers. *Work and Occupations*. 29. 428-459.
- Hobson, B. (1994). Solo mothers, social policy regimes and the logics of gender. in Sainsbury, D(Ed.), *Gender and welfare states*. Sage.
- Knijin, T. & M. Kremer. (1997). Gender and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s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4(3). 328-361.

- Kremer, M.(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In Michel, S. & Mahon, R.(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s restructuring*. New York: Routledge.
- Kremer, M.(2007). *How welfare states care: culture, gender and citizenship in europe*. Amsterdam
- Lewis, J. and Ostner,I.(1991). *Gender and evolution of european social policies*. Center for Europe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 Lewis, J.(1998).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s Restructuring in Europe*. London Ashgate.
- Lister, R.(2003). *Investing in the citizen-workers of the future: transformations in citizenship and the state under new labour's. social policy*. Cross-national Comparisons. Bristol: Policy Press.
- Mahon, R.(2002).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through the lens of child care. In Michel, S. & Mahon, R.(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s restructuring*. New York: Routledge.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hip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328.
- Papadopoulos, T. (1998). Greek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omen, Work and the Family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47-57.
- Pfau-Effinger, B.(1998). Change of family Policie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European Societies. *Comparative Social Research*. 18. 135-159.
- Pfau-Effinger, B.(1990). The modernization of family and motherhood in western Europe. In R. Crompton(Ed.),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The Decline of the Male Breadwinner*. Oxford University Press. 60-79.
-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Welfare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 Sainsbury, D. (1999). *Gender, policy regimes and politics*. in Sainsbury, D(Ed.), *Gender and welfare states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245-276.
- Wall, K.(2007). Leave policy models and the articulation of work and family in Europe: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P. Moss & K. Wall (Eds.),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07*. ERRS No. 80.

Abstract

Comparing Child Care Regimes in Welfare States: Care Cultural-Institutional Approach

Yun, Seung H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Care is now a widely-used concept in welfare state research. But its use is also very selective. What this study points out as limits of existing studies consists roughly of two kinds. First, The family is still an important provider of care but many studies have only focused on formal care. Second, They have not been concerned enough about cultural aspect of care.

This study compares and categorizes care strategies for children in 13 OECD countries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cultural dimension and institutional dimension of care. 13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3 clusters as a result of typology(social care type, motherhood supporting care type, and family responsible care type).

This research was able to find two results. First, by including informal care and cultural dimension of care in the categorization framework, it expands the scope of discussion on care. Second, by considering cultural aspect of care, it has tried to examine and interpret various care types and their effects.

Keywords: Care, welfare state regimes, childcare policy, informal care, care culture